

發表 및 討論要旨

第 1 會議

司會：全海宗

發表：劉家駒，金東成

討論：張公子，사무엘 金

通譯：崔寬藏

發 表

劉家駒：이 논문은 文革期間중에 나타난 中共지도자들의 표현, 행동 및 운용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공산당 지도자들의 리더십 행위패턴과 文革에 대한 理解를 깊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로 지적될 사항은 文革의 원인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文革이 기본적으로 中蘇紛爭 이후 전개된 외부상황속에서 내부정세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文革의 원인으로는 보통 永久革命論의 일환, 공산당지배 이후에 만연된 관료주의의 一掃, 약 20년간의 공산당지배 후 밀로부터 나타난 국민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전략, 毛 개인의 권력투쟁 등을 지적하였다. 내 견해로는 홍콩의 丁望교수의 지적대로 권력투쟁과 이데올로기투쟁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듯하다. 文革은 점차 약해지는 자신의 권위에 위협을 느낀 毛의 권력재탈환과 중국식 사회주의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정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文革期間중 공산당 지도자들의 文革運用 전략문제를 분석하였다. 1920~30년대 공산주의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린 것은 전통문화에 대해 회의론을 느낀 지식인들이 제국주의침략을 벗어나기 위한 사상적·전략적 代

案으로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당시 사회분위기도 이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공산당이 제3차 인터내셔널의 대중운동노선을 따른 데 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되었고, 대중운동에 습관이 든 中國공산당은 1949년이후에도 이를 계속 추진하여 대내적 정치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즉 1950년대의 토지개혁운동, 1951년의 三反五反運動, 1954년 反革命肅清運動, 1957년 整風運動, 1958년 三面紅旗運動 등 일련의 대중운동이 文革에서 그 정점을 이룬 것이다. 대중운동의 목적은 唯我獨存式的 권위확립, 투쟁의 대상을 설정하여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있다. 毛는 文革이라는 대중운동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반대파를 제거한 동시에 절대권위를 확립하였다.

세제로는 지식인에 대한 공산당의 사상통제문제이다. 중국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신을 규정하며, 지식인도 프롤레타리아의 한 구성원으로서 프롤레타리아문화에 속하는 사회적 범주로 보고 있다. 모든 지식인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지식인의 의견은 개인의 순수한 학술적 의견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상황에 따라 평가되어 채택 또는 거부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지식인의 형성이 없었던 동시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한 진정한 학술적 평가가 어렵다.

文革은 중공의 큰 재난이었고 현 老幹部들도 文革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文革에 대한 사상적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며 그에 대한 반성도 아직 불충분하다. 일례를 들면 毛澤東思想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文革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측하는 것에는 일단 부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金東成 : 本稿는 1920~27년까지 중국 초기의 공산주의혁명운동을 이끌어 나간 1920년대의 소위 ‘黨領導的人物’들과 리더십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당중앙을 중심으로 이들이 취한 행태, 태도 및 공산주의운동의 경험

을 종합하여 하나의 틀 속에 넣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산주의운동 초기의 중공당지도자들의 사상·교육·사회적 배경을 파악한 후, 다섯 개의 문제군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창당초기 리더들은 어떻게 소수에 의한 리더십을 형성했으며, 당의 조직·운영면에서 중국공산당 특유의 성격을 창출하였는가?

둘째, 온갖 어려운 환경하에서 이들은 어떻게 결속될 수 있었는가?

셋째, 창당초기 이들의 코민테른에 대한 태도는?

넷째, 이들은 어떻게 당의 조직·관리적 취약성을 극복하였는가?

다섯째, 1930년대 이후의 성공적 혁명활동을 추진시키는데 공헌한 경험적 교훈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파악에 있어 편견이나 선입관을 제거하고 현상의 중립적 기술에 치중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다.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은 절대다수가 中農이상 비교적 안정된 생활기반을 가진 가정출신으로, 이들은 개인적인 사회가치의 박탈에 따른 보상의 요구로서 혁명운동에 참여했다기 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관의 결과로 참여했다는 가설의 설정을 가능케 한다. 초기 공산당리더들은 당시상황에서 볼 때 최고의 젊은 지식층으로서 그들의 민족주의적 정열은 현실타파를 통한 新中國의 回生이라는 理想主義의 命題와 결합하여 투쟁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수용과정에서 추상적 이론을 구체적 신념체제로 轉化시킨 인물로는 7명의 중심리더들중 陳獨秀와 李大釗로 압축될 수 있다. 陳獨秀는 마르크스主義를 일반적으로 正統理論的이며 決定論的次元에서 이해하며 正統마르크스시즘에 의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높게 평가하고 지도한 반면, 李大釗는 정치적 행동주의와 민족주의적 충동에 의존한 主志主義(Voluntarism)를 높이 사고 지도해 나갔다. 특히 李는 마르크스의 決定論的 處方과 자신의 主志主義的·行動主義的 世

界觀의 조화만이 중국혁명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관념과 農民의 중요성 강조는 후일 毛澤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때올리기 수 용과정에서의 이같은 경험은 創黨이후 1927년 당이 거의 와해될 때까지 수많은 정책적 논쟁과 혁명전략채택에 있어서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黨中央리더십의 권위를 維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초기의 공산당은 의형적 기구·조직이라기 보다는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공산당리더들의 불안, 좌절, 그리고 투쟁적 성향을 순화시켜주는 심리적 피안처로서의 추상적인 구심적 역할을 했다.

최소한 창당초기의 黨리더십은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체적 行動體였다. 그리고 國共合作이후부터 공산당 자체의 상대적 왜소감, 그리고 재정적·정치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코민테른의 영향력 강화에 순응해갔다.

당의 지침과 규율 그리고 엄격한 黨리더십의 충원과정은 소수에 의한 黨리더십體系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와 심각성을 띤 공산주의운동을 가능케 하였고 黨리더십의 결속을 유지하게 하였다. 특히 創黨리더들은 당 운영에 있어 黨內 民主主義와 分權的 利點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黨리더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활동을 고무하고 유도할 수 있었다.

黨리더들은 黨指導者數의 열세와 組織次元에서의 취약점을 리더십 테크닉을 통해 해소시켜 나갔다. 즉 노동자, 학생, 기타 대중조직과 단체의 조직 및 운용과 이들의 聯合體 構成, 夜學과 學習俱樂部의 운용, 농촌에서의 講習所運營, 선전책자의 발간과 유포, 軍事將校 및 候補生의 포섭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창당초기 黨領導人物들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黨리더십 및 黨運用의 특징 중 성공적 요소는 후일에 그대로 복제·활용했고, 실패요소는 교훈으로 돌려 새로운 이론체제와 전략전술의 개발에 참조해 나갔다는 점이다.

討 論

사무엘 金 : 이데올로기와 리더십의 연관성은 중공에서도 아주 큰 논쟁거리이며 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전개하려 한다. 1976년 9월 19일 毛澤東사망 이후 중공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환경은 점진적 변화를 겪고 있다. 毛死後 초기에는 毛思想이 지속적 영향을 미친 연속성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華國鋒·鄧小平의 시대는 毛思想의 점차적 쇠퇴기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毛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지도노선이 없이는 중공통치에 곤란을 느껴 다시 毛思想의 회복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鄧小平選集에는 “毛가 말한 것이 모두 옳지는 않다”, “實事求是에 입각해야 한다” 등 毛思想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 1984년 12월 7일 人民日報에는 “마르크스는 100년전에 죽었다. 그후 그의 사상이나 이상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문제의 해결에 마르크스-레닌저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社說이 게재되었다. 3일후 同社說은 이 文句가 인쇄상의 誤字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등장하며 毛思想에 대한 비판적 평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思想은 아직 公式的인 이데올로기로 선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現指導部の 지도노선을 구체화하고 있는 1982년 헌법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思想이 黨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선언되어 있으며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脫毛化傾向은 분명하다. 이는 T. Kuhn의 용어대로 ‘decay of paradigm’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는 중공이 일종의 신념의 위기(crisis of faith)를 겪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현재 중공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思想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며 中共을 통치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데올로기적 완화(ideological relaxation)와 근대화와의 조화,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적 통제의 조화문제로 귀착된다. 鄧小平은 분명 중공의 현대화를 야심차게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최대한 완화하려 하고 있다. 毛澤東의 이데올로기를 'ideology of promise'라 본다면, 鄧小平의 이데올로기는 'ideology of performance'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鄧은 공산당 정당성(legitimacy)의 기반 또는 *raison d'état*을 인민의 생활, 복지향상에 두고 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樣態, 가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전제조건으로서 사회적·물질적 조건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心的 상태를 우선적으로 변화시켜 물질적 상태의 변화에 기초로 삼는 毛의 방식과는 정반대이다. 물론 鄧의 路線이 중공지도층 내부에서 완전한 호응을 받는 것은 아니다.

1985년 9월에 열린 黨政治局 常任委員會에서는 鄧小平과 陳雲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서 鄧은 자신의 개혁정책 지지를 호소했으나, 陳雲은 이데올로기적 완화로 인한 부패 및 국민기강의 해이를 문제로 들고 나와 鄧을 공격하였다. 사실 이런 종류의 대립은 毛時代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국 鄧도 자신의 實事求是정책만으로는 중공의 이데올로기적 풍토를 거슬릴 수 없다고 보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思想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도그마(dogma)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지침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실용주의의노선과 절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현 중공의 지도층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충돌, 근대화, 산업화와 이데올로기 재조정작업의 조화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적 통제의 조화라는 문제가 현 지도층의 당면한 가장 실질적인 과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張公子: 먼저 김동성교수에게 몇 가지 질문과 評을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공산당 초기의 대표적 지도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집필·주장한 論調, 그리고 전략적 구상과 정책수행과정에 나타났던 可視的 行態에 중심을 두고 분류·요약해 보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논문에는 이러한

주제가 충분히 살지 못했다. 우선 필수적인 중요문헌이 소화되지 않아 주제를 살릴 수 없었다고 본다. 脚註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陳獨秀의 “獨秀文全”, 李大釗의 “李大釗選集”, 張國燾의 文集 등 중요원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평가가 없었다.

毛가 적어도 1927년까지는 陳獨秀, 李大釗의 노선을 따랐다고 지적하는 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이미 1925년 毛는 “中國社會의 各階層의 分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미 독자적인 자기사상의 발전이 상당히 이룩되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후일 毛-陳의 이론상의 分岐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1927년 이전에 毛가 陳獨秀, 李大釗의 사상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독자적 사상이 형성되는 도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창당초기 리더들이 거의 이상주의자들로서 1925년까지는 공개적으로 폭력의 중요성을 주장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도 반론을 제기한다. 陳獨秀의 「談政治」 후편(1920년)에 보면, “중국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과 계급투쟁”, “자본가들이 부과한 압력과 착취에 대항하는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스스로가 새로운 힘을 만들어 자본가를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것이다.……그것은 힘과 계급전쟁으로 수행”이라는 귀결이 나온다. 또 전쟁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전쟁의 구체적 방법도 제시한 글이 많다. 이처럼 1925년 이전에도 폭력의 중요성을 주장한 자료가 많다.

이 논문은 창당초기 리더들이 陳獨秀, 李大釗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여 陳-李 두 사람의 사상으로 압축시켰다. 그렇다면 陳-李 둘의 思想상의 차이가 李立三, 毛澤東 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으며, 陳-李사상과 기타 리더들의 사상과는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지적했어야 했다. 또한 사상면에만 치중하여 陳獨秀가 실제 어떻게 당권을 장악하여 리더쉽을 발휘했는지에 대해 분석이 없다. 陳獨秀, 李大釗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루면서도 또 여타 5명의 리더를

포함한 7명으로 논의의 전개축을 삼아 혼란을 빚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사상과 리더십을 분류하여 나누고, 이런 요소들이 黨과 후일 毛澤東에게 미친 영향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특히 각 지도자들의 사상의 대립, 사상과 리더십이 黨에 미친 영향, 그것이 毛에 연결되는 양태를 분석하는 것이 한층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劉교수에게 질문을 제기하겠다. 劉교수는 「海瑞罷官」이 文革의 발발요인이라는 지적을 하고 이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海瑞罷官」문제는 1965년 11월의 일로, 나는 1963년의 “農村社會主義 教育運動” 문제를 놓고 벌어진 毛와 劉少奇의 대립이 권력투쟁에서 이데올로기투쟁으로의 본격시발을 촉진시켰다고 본다. 劉교수는 文革의 시발을 “農村社會主義 教育運動”을 둘러싼 대립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毛澤東과 劉少奇의 의견대립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毛의 권력투쟁과 文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접합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金교수의 지적대로 당시 毛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의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아직 毛에 필적할 만한 이론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鄧小平의 경우 앞으로 文革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答 辯

金東成: 毛는 물론 1925년 이전에도 “體育과 政治”라는 논문을 썼고, 또 1923년에는 공산혁명에서 농민세력의 위치를 둘러싸고 陳獨秀와 맞선다. 이런 세부사항을 논문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毛는 1925년 이전에도 자기생각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류의 혁명전략구상이 어느 정도 정립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나는 후일 共產黨史家들이 毛를 부각시키기 위해 陳을 하락시켰다고 본다. 물론 毛는 1925년 이전에도 陳에게 대립되는 면을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대립할 만한 위치에 있

지는 못했다. 1925년 4全大會 이후에야 毛의 지위는 비로소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개인이 잠재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서서 대립될 정도로 격상되어야만 의견대립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陳獨秀도 폭력을 중시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산주의자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내가 지적한 폭력은 폭력혁명이라는 일반적 속성의 것이 아니라, 리더쉽기술로 러시아혁명시에 자행되었던 폭력이나 방화 등을 말한다. 이를 밝혀두지 않아 오해가 있는 듯하다.

陳獨秀의 당권장악같은 역사적 줄거리에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다. 創黨初期의 리더들은 北京大學 주변에 모인 사상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개인적 친분관계가 밀접했으며, 창당초기에는 黨權掌握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것은 후기에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생각하여 논문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도록 하겠다.

劉家駒 : 文革時에는 사상적 위기가 없었다. 文革을 말았던 紅衛兵내부에서도 상당한 파벌이 있었으나, 결국은 軍인이 文革을 해결하였다. 중국 사회의 사상적 위기의식은 文革후에야 생성된 것이다.

나는 앞으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경제우위의 시기가 도래하여 경제가 사상을 통제하는 양상이 중공에 나타나리라고 본다. 그에 비례하여 지식인에 대한 정책도 다원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文革과 같은 사상적 위기의 재현가능성에는 부정적이다.

사무엘 金교수는 鄧小平과 陳雲의 대립을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평가했으나, 이들의 분열은 경제정책수행을 둘러싼 것으로 毛澤東-劉少奇的 분열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 毛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더 충실하였고, 劉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중시하였다. 앞으로 중공에서 정치적으로 큰 개혁이나 위기는 없으리라 본다. 鄧의 사회주의는 중국의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로 實事求是를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毛의 중국식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第2會議

司會：梁好民

發表：金鴻洛，中村勝範

討論：魚秀永，山田辰雄

通譯：秋月望

發 表

金鴻洛：본 논문은 戰後 日本共產黨의 정치적 입장 및 정책변화에 미친 宮本의 역할을 분석하며, 1961년 새로운 黨綱領의 채택이후 커다란 신장세를 보인 日本共產黨의 최근 침체요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日本共產黨은 1922년에 창립되었으나 戰前에는 불법적 조직으로 취급되어 당원수도 1000명을 넘는 적이 없었다. 戰後 도쿠다 규히치, 시나 요시오, 노사가 산조에 의해 재건되었고, 특히 노사가의 유연한 ‘平和的 革命戰略’에 힘입어 1946~49년에는 급격한 세력신장을 보였다. 그러나 1950년 1월 中蘇의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한 결과 점차 지지를 상실하여 1952년에는 단 한명도 議席을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이때 黨指導部の 일원으로 부상한 인물이 宮本顯治이다.

1931년 東京大學 經濟學部를 졸업한 직후 공산당에 가입한 宮本은 이미 1933년에 黨內 最高指導者중의 하나로 부상했으나, 1933년 린치살인사건의 관련혐의로 투옥되었다. 1945년 終戰과 더불어 석방되어 곧장 日本共產黨 再建委員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지만 도쿠다, 노사가의 주류파와는 의견이 맞지 않아 黨內에서는 소외된 위치에 있었다. 그래도 그는 國際派라는 파벌의 보스로 군림하고 있다가 1950년 1월 코민포름이 노사가의 平和戰略을 비판하자 主流派를 비판하며 코민포름의 노선을 전폭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1951년 8월 모스크바, 北京에서 나온 일련의 지시가 宮

本派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國際派는 해체되고 말았다.

그후 共產黨의 중심멤버로 일체 활동치 않던 宮本은 1955년 봄 日本共產黨 재건을 맡은 시다 시게요와 타협하여 黨建設指導委員의 한사람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노사까, 시다와 더불어 주요인물이 되었고 1958년 第7次 黨大會에서 書記長으로 당선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중추적 역할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노사까에 밀리다가 1961년에 와서야 黨 一人者의 지위에 올라선다. 同年 새로운 黨規約를 완전 통과시킨 동시에 자신의 심복을 中央政治局, 書記局의 요직에 등용하였던 것이다. 1966년 第9次 黨大會에서는 그때까지 강력한 파벌로 남아있던 親中派, 親蘇派를 축출하며 宮本派가 黨을 완전 장악한다. 이때부터 일련의 노선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그때까지 미련을 갖고 있던 ‘暴力革命路線’을 버리고 ‘議會를 통한 革命’의 평화적 노선으로 의석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유로코뮤니즘과 맥락을 같이하는 민족적·민주적 색채를 日本共產黨에 가미하여, 1970년 “民主連合政權構想”, 1976년 “自由에 관한 宣言” 등 일련의 유연한 평화적 노선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산당독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는 일본국민에게 영합하기 위해 대내적 용어수정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赤旗」의 편집방침도 개편하여 전투적인 선전기사나 용어를 삭제하고 가벼운 문화관계기사를 많이 실어 일반인에게도 읽히도록 만들었다. 선거전략도 개편하여 득표위주의 일상활동을 중시하고 선거구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미모의 여성 등을 공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결과 1972년 총선거에서 큰 개가를 거두었으나 1976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당세확장면에서 사실상의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자연히 宮本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고 1985년 11월 제17차 당대회에서는 東京大 大學院生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이 宮本의 의장사퇴를 요구하는 등 反宮本무드는 黨內에 상당히 심각하게 나돌고 있다.

이러한 日本共產黨의 정체성은 「赤旗」구독부수의 감소, 당원수의 감소,

득표율 및 의원수의 감소라는 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宮本은 그 원인을 日本의 매스미디어와 여타 정당의 반공선전 탓으로 돌리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지적하였다. 첫째, 1933년에 있었던 린치살인사건에 宮本의 관련여부가 드러나며 宮本 자신과 共產黨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둘째, 여타 野黨, 특히 社會黨과 불화를 빚는 등 共產黨과 협력을 취할 수 있는 당이 거의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勞組와의 관계도 원만치 못하고, 勞組幹部들은 宮本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셋째, 유로코뮤니즘식의 민주적 당운영을 공약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레닌식의 민주집중제를 채택하여 비민주적인 중앙집권적 당운영을 한다는 점이다. 공약과 실천의 괴리에 국민들의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넷째, 蘇聯과 北韓의 武力, 테러 행사에 자극을 받은 日本人들에게는 日本共產黨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두 同類의 공산당으로 비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정치환경이 변화하여 1960년대말부터 공산당 득세의 기반이 되었던 도시문제, 환경문제 등의 쟁점이 해결되고, 日本人의 절대다수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상변경의 공산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대로 宮本은 日本共產黨을 평화노선으로 전환시키고 정당한 야당으로 육성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中蘇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민족정당임을 과시하며 共產黨의 재정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는 사실은 그의 뚜렷한 공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당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化하고 말았다. 우선 30년간의 집권자체도 日本人에게는 좋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며 계속 독선적이고 경직화된 태도로 黨內 불협화음을 연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많은 공적이 있었지만 이제 宮本의 시대는 끝난 듯하다.

中村勝範 : 나는 日本의 대학교수들중 日本共產黨에 가장 많은 비판을 가하고 역으로 共產黨 출판물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日本共產黨이 宮本の 주도권 장악후 보여준 일련의 변화를 사상과 행동의 측면, 조직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과연 이같은 변화상이 共產黨의 진정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戰後 日本共產黨을 살펴보려면 1958년 7월의 第7次 黨大會를 기점으로 前後事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共產黨은 1958년후 黨員數, 黨機關紙 發行部數, 國會議員數에 있어 큰 신장세를 보인다. 이러한 신장은 現 中央委員會 委員長으로 있는 宮本の 뛰어난 지도 덕택으로 볼 수 있다. 1946년 日本共產黨이 재건될 당시 宮本은 총 6,847명의 당원들 중 4~5위의 지위에 있었다. 美軍占領下에서 共產黨은 노사가 산조의 平和革命路線을 채택했으나 1950년 1월 코민포름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때 宮本은 코민포름의 방침에 즉시 동의하여 군사적 혁명노선을 주장하였다. 결국 共產黨 主流派도 코민포름의 비판을 받아들여 폭력혁명론을 수용하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동조한 宮本은 黨主流로부터 소외되고 만다. 그러나 共產黨의 군사노선은 1952년 10월 총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후 日本共產黨은 1955년 제 6차 全國協議會에서 군사방침을 자기비판한다. 이 6全協에서는 主流派의 혁명노선과 宮本派의 평화노선이 절충을 보았고 宮本은 반정도 정상에 도달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第8次大會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후 日本共產黨은 평화혁명노선으로 완전히 전환하였다. 이 노선전환은 美軍이 주둔하는 日本내에서 무장폭력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宮本の 노선전환이 反蘇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宮本은 1956년 헝가리事態時 蘇聯의 출동이 옳았다고 지지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 성명서도 사전발발 4개월후에야 나왔던 것이다.

日本共產黨의 폭력혁명 및 공산당독재의 포기에는 ‘民主連合政府構想’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는 ① 自民黨政府타도 ② 美·日 安保條約에 대한 반대라는 두 조건만 갖추면 어느 측과도 연정을 만들겠다는 선언으

로, 自衛隊와 경제체제는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은 공산당이 실제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또 1976년 7월 제3차 임시대회에서 채택된 ‘自由와 民主主義의 宣言’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공산당의 중심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국민에게 매혹적인 내용으로 日本共産黨이 자유를 지킨다는 인상을 주었다. 더구나 蘇聯·中共으로부터 독립한 자주적 정당으로 스스로를 선언함에 따라 黨勢도 확장되었다. 사실 기관지 판매부수의 신장, 공산당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수의 증대, 재정적 충실성으로 인해 그만큼 외부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宮本이 최고지도자가 되며 日本共産黨은 자주독립성, 민주주의의 수호를 선언하여 국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산당이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예는 없다. 宮本은 의회를 통한 공산혁명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실현성 여부가 의심스럽다. 과연 공산당이 단독정권획득후 歐美式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느냐는 것에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다. 내가 항상 日本共産黨을 비판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討 論

魚秀永: 김교수는 日本共産黨의 변화를 리더쉽, 이데올로기, 선거전략의 세 측면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결론부분에 宮本の 시대는 갔다고 지적하였는데 내 견해로는 日本共産黨 자체가 한계에 온 것으로 여겨진다. 1958~83년에 있었던 10회의 중요선거를 놓고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계(無所屬+新自由클럽+自民黨)는 50%내외의 지속세, 중도계(公明黨+民社黨)는 17%내외의 지속세, 혁신계(社會黨+共産黨)는 30% 정도의 지속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계를 다시 분류하면 社會黨이 20%선, 共産黨은 10%선의 득표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20년간 거의 일관된 추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공산당의 성장은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 김교수는 공산당의 의석수증감을 많이 지적했지만, 日本의 경우 어느 정당의

성장 또는 쇠퇴를 알려면 득표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다. 日本의 선거제도는 동일 득표율로도 한 선거구에 대한 복수입후보등의 선거전략에 따라 의석수가 크게 차이난다.

공산당 성장의 한계로 지적될 또 하나의 요소는 일본의 정치환경이 변했다는 점이다. 1970 년이후 공산당의 성장은 일본 산업화과정에서 등장한 환경문제, 시민운동의 열파가 공산당과 결부되며 일어난 현상이다. 이에 부응하여 공산당도 전략, 전술, 이데올로기를 바꾸어 성공했다. 그러나 1980 년이후 환경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自民黨의 확실한 위치, 노동운동의 보수화경향, 노동자의 보수화 및 현실안주 등으로 인해 공산당이 파고 들 여지가 없어졌다. 공산당의 리더십이 변화, 발전한다고 해도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유권자들이 自民黨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의 해소 방책으로 공산당에게 투표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것은 공산당에게 집권을 맡기는 투표가 아니다. 宮本이후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의 성장가능성에는 보다 회의적이다.

中村교수에게는 다음의 몇가지 의문점을 묻고 싶다. 공산당이 ‘自由와民主主義의 宣言’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 단순한 전략전술의 일환인지, 아니면 근본적 변화인가? 만일 前者에 해당한다면 공산당의 변화에 따라 社會黨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전략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Downsian model이 보여주듯 일본과 같은 안정사회에서는 선거전략에서 중앙을 先占하는 축이 유리하다. 공산당이 중앙으로 근접함에 따라 결국 보다 온화한 사회당의 표를 잠식해 들어갔다. 그 결과 사회당과는 어떤 마찰을 일으켰고, 전략전술상에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또 사회당과 공산당은 국내, 국제정치에서 어떤 노선차이를 나타내는지도 궁금하다. 특히 이 부분의 분석이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

日本의 정당들은 모두 파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自民黨의 파

벌이 interest ridden faction 이라면, 共產黨과 社會黨의 파벌은 ideology ridden faction 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혁신계라도 사회당은 아직 파벌을 극복치 못했으나 공산당은 상당히 극복했다. 이것이 宮本 개인의 리더십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北方四個島를 둘러싸고 對蘇感情이 나쁜 日本人들에게는 日本共產黨이 蘇聯과 identity 를 해도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별했다고 본다. 그 래도 아직까지는 공산당이 蘇聯과의 접촉채널 구실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같은 역할이 수행가능하다고 보는가? 日本의 전반적인 보수화경향과 공산당의 對美安保條約반대는 日本國民에게 어떻게 수용가능한가?

山田辰雄: 우선 金교수의 논문에 대한 의문점과 論評부터 시작하겠다. 宮本의 권력확립과정과 日本共產黨의 自主獨立路線 設定은 中蘇紛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유연한 정책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주장하는 면에서는 毛澤東과도 유사하다. 만일 中蘇對立과 宮本의 권력확립이 관계있다면 蘇聯에서 있었던 후르시초프의 스탈린비판에 대한 宮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다. 또 그것이 日本共產黨의 리더십전환과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中村교수에게는 宮本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묻고 싶다. 왜 宮本은 공산주의자가 되었으며, 그의 사회적 출신배경은 어떠했는가? 이번 회의의 주제인 공산주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깊고 넓어갈 문제로 생각된다. 내 견해로는 아세아에서의 공산주의 수용에는 그 사회전통가치와의 결별이 주요 계기로 작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天皇制와의 결별, 중국에서는 유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변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宮本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또 중국에서는 無政府主義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대립이 중요문제로 등장하였던 경험이 있다. 宮本의 경우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答 辯

金鴻洛 : 日本共產黨의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魚교수의 지적에 동감한다. 공산당의 득표율은 한계에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日本社會전반의 보수 화경향과 연제지어도 그 같은 진단을 내릴 수 있다.

宮本에 대한 山田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日本에서 온 中村교수가 적합하겠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는 宮本の 공산주의 전환배경에는 文人 구하다 고레이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宮本은 문학청년으로 출발하여 大正時代 큰 위세를 떨쳤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동화된 것 같다. 毛澤東과 宮本の 권력장악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권력추구 자체는 유사할 수 있겠지만, 대내적 유희책, 대외적 독자성이 반드시 공통점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의문이다. 후르시초프의 스탈린비판 이후 日本共產黨도 蘇聯의 제도를 모방하여 第1書記職을 채택하였다. 1955년 6全協에서 노사가 산조가 第1書記로 선출되었다. 日本共產黨도 평화공존책을 둘러싸고 큰 논쟁을 벌였지만 대체로 후르시초프의 방침을 환영하는 경향이었다.

中村勝範 : 日本共產黨이 평화전략을 채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변화가 아니다. 그들의 자유 민주주의는 신빙성이 없으며, 과학적 사회주의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말한다. 예를 들면 日本共產黨에 入黨할 때 읽어야 할 서적 100여권중 20여권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관계서적이다. 작년에는 日本共產黨의 공식방침과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東京都의 한 후보가 제명처분되는 사태도 있었다. 이들이 택한 民主集重制는 독재로 통하는 길이며, 日本共產黨이 집권하면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宮本の 사회적 배경은 中流정도로 생각된다. 당시 대학에 다니려면 어느 정도의 財力이 있어야 했다. 몰락해 가는 가정에서 혁명가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일면 수긍이 가지만, 日本共產黨연구에는 1912년 이후 大正時

代에서 滿洲事變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학문언론계에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시대분위기를 감안해야 한다. 宮本도 처음에는 문예평론판계의 글을 썼고 한 좌익잡지사에 기고하여 1등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前歷을 보아도 宮本 역시 당시의 시대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인 入黨계기는 좌익잡지에 1등으로 당선되었던 사실이다. 또 당시 日本共產黨은 코민테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당에 입당하면 더욱 수입이 좋기도 했다. 日本에는 1920년대초 무정부주의와 불세비키주의 사이에 벌어졌던 유명한 ‘아나-불 論爭’이 있다. 결국 불세비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 그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성기로 접어들어섰다.

第3會議

司會：李光麟

發表：梁性詒，徐大庸

討論：高性俊，金南植

發 表

梁性詒：이 논문은 朴憲永의 인간, 정치, 사상에 관한 연구논문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적 시도로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박헌영을 연구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몇가지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의 인간, 정치, 政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였다.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우선 傳記서술상의 일반적 제약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傳記는 그 성격상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대상인물의 一生을 이곳 저곳 散在해 있는 자료를 통해 거슬러 되돌아 보는 추리를 기본으로 삼는다. 게다가 박헌영의 경우 그에 관한 자료

가 극히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조차도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남북분단, 반공이라는 정치환경과 도식화된 이념적 여건이 제약을 가한다. 이상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의 인간 및 사상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1900년 5월 1일 朴鉉圭의 庶子로 태어난 박헌영은 高普졸업후 美國行이 좌절되며 1920년 9월 上海로 가 1921년 7월 Irkutsk 派 高麗共產黨 上海支部에 入黨한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로서의 그의 一生은 시작된다. 1922년 귀국하였으나 계속되는 投獄, 지하투쟁으로 완고한 성미의 비타협주의자가 되었다. 解放後 南韓에서 공산주의운동을 주도하지만 개인의 인간적인 결함, 美軍政의 탄압으로 계속 위축되어 결국 서울을 탈출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그의 일생은 한국공산당史의 시련과 각고의 행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도식화된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으나 그러한 원칙성이 자신을 몰락시킨 한 원인이었고, 국내·국제 정치상황에 쉽게 적응·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사상면에서 본다면 1945년 이전 그의 사상은 기초적인 공산주의이론의 도식적 이해에 불과했다. 1945년 이후의 것으로는 부르조아혁명을 거쳐 단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8월 테제'가 대표적이다. 총체적으로 보아 그의 사상은 도식적인 공산주의이론의 습득에 그쳐 당시 상황에 적응한 새로운 이론을 체계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그나마 차이 내놓은 '8월 테제'에 버금가는 이론·전략은 없다는 점에서 박헌영을 共產黨史의 사상적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徐大肅 : 이 논문은 英文으로 출간예정인 “김일성 : 그의 생애와 정치”라는 책의 요약이다. 방대한 분량을 모두 발표할 수는 없고 몇 개의 문제로 압축하여 논의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한다. .

첫째, 김일성의 「정체」문제이다. 보통 북한의 김일성은 과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일성」이라는 老英雄을 사칭한 가짜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그가 바로 「진짜 김일성」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물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싸운 사람은 많지만 현 북한의 「김일성」이 가장 유명하고 전과도 많이 거두었다. 또 그 자신이나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니다. 그가 창설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은 허구이다. 그는 「東北抗日聯軍」에 소속하여 싸웠고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 안에는 다른 한국인도 많았으며 그의 상관도 많았다. 이 관계는 최근 일본, 중공에서 많은 자료가 나와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김일성의 「체보」문제이다. 그는 현재 북한에서 주장한 대로 만주로부터 개선귀향한 것이 아니라, 1945년 9월 17일 원산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지적된대로 蘇聯에 있는 韓人共產主義者 소속이 아니며 이들과 같이 오지도 않았다. 그의 부대는 소속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대이다. 해방이후 북한에는 南勞黨, 蘇聯派, 延安派, 金日成派의 4개파벌이 각축을 벌이며, 모두 김일성에게 도전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제일 처음 남로당이 제거된다. 그러나 그 원인은 김일성이 이들을 美國의 앞잡이로 일방적으로 몰았기 때문은 아니다. 6·25 말엽 남로당이 군대를 동원하여 金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숙청한 것이다. 한편 金은 蘇聯이 6·25 당시 별로 도와주지 않은 사실에 반감을 품고 蘇聯派들을 축출하기 시작한다. 蘇聯派는 1953년경부터 모두 蘇聯으로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延安派도 1958년경에 모두 패배하여 1960년대는 金이 실권을 완전 장악한다. 1960년대부터 金에게 닥친 문제는 對外的 상황변화였다.

세째, 대외적 상황변화와 관련지어 나타난 소위 「주체사상」 문제이다. 中蘇紛爭으로 金은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北의 독립이 지장을 받게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 1960~65년 朝露紛爭, 1965~70년 朝中紛爭이라는 일련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1970년 이후에는 제3세대로 진출한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갈

은 과정의 산물이다. 물론 주체사상의 맹아적 형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反蘇親中路線으로 시작된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에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金은 여기서 親蘇風潮를 배경하고 中共類의 整風運動을 주장하였다. 그후 보다 체계화되고 살을 붙여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이지, 꼭 우상화정책의 산물로만 볼 수는 없다.

네째, 그에 대한 평가이다. 北의 자주성을 유지하여 中蘇로부터 완전한 독자성을 확보한 것은 공적에 속한다. 그러나 통일정책에 대해 對南신뢰감을 얻지 못한 것은 실패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죽은 수많은 공산주의자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공산주의를 건설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이론 것은 '김일성 공화국'이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가장 그를 혹독히 비판한다.

討 論

高性俊: 양교수는 박헌영이 上海에 가서 이르크츠크派와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 견해로는 이르크츠크派와 이동휘派는 출발은 달랐지만 모두 코민테른의 지원을 위해 노력했던 똑같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르크츠크派와의 만남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가? 김일성을 스탈린에, 박헌영을 트로츠키에 비유한 것은 박헌영이 권력투쟁에 패배하여 그렇게 비유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 논문은 1945년 이전의 박헌영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1945년 이후의 朴이 공산주의운동가로서 더 중요한 듯하다. 朴은 1945년 이후에 공산당 지도자로서 활동하며 北으로 갈 때까지, 北에 가서도 계속 南韓의 공산주의운동을 지지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자로서의 朴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1945년 이후 일반적인 정치활동가로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서교수에게는 다음과 같은 본인의 의문점을 질문하겠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인데 김일성으로의 改名은 언제, 어떤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인가? 金의 만주활동은 中國共產黨의 지휘관할아래 이루어졌다. 이 활동 경력은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가, 아니면 민족주의자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인가? 北韓에서 김일성이 소비에트정권의 지도자로 확립되는 과정을 보면 1945년 12월에서 1946년 1월부터 蘇聯軍政의 지지를 받는다. 서교수의 논문을 보면 金이 처음부터 蘇聯軍政의 절대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한 것처럼 해석된다. 1945년 10월 14일의 모임이 ‘蘇聯軍 환영대회’인지 ‘김일성장군 환영대회’인지?

金南植 : 한 개인의 사상, 세계관이 형성되는 데는 여러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朴憲永의 경우에도 생애의 갖가지 경험이 후일의 정치적 입장이나 사상에 연계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사상체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즉 경험과 사상의 연계성이 분석되었어야 했는데 그같은 점이 빠져있다. 朴의 정치적 입장에서 중요한 측면은 그가 美國에 대해 가졌던 태도이다. 처음 그는 美國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규정하여 1946년 7월 4일 美獨立 170주년 기념사에서 朝鮮共產黨을 대표한 찬양연설을 한다. 또 계속 美軍政과도 협조하며 「朝美文化院」을 만들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그는 美國을 우방국으로 보았다. 그러던 것이 1947년 중반부터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아 美國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입장변화를 본다면 당시 朴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간부들이 상당한 사상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추측되는데 이런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 과연 그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다녔는가?

김일성과 박헌영의 정통공산주의, 비정통공산주의 분류는 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를 보면 해방이전까지 정통, 비정통 문제가 나올 수 없다. 오히려 서대숙교수의 지적대로 신공산주의, 구공산주의의 구분이 옳을 듯하다. 朴이 북한에서 활동했어야 했다는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공산당 조직원리에는 일단 線이 끊어지면 대단히 문제시된다. 1928년 코민테른으로부터 해체

명령을 받은 조선공산당이 계속 끈질기게 활동하지만 소련이나 ‘제3차 인터내셔널’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어 있었다. 北으로 건너가 蘇聯軍政下에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계선을 상실했던 朴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가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朴의 사상을 도식적·기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적용이라는 평가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그의 ‘8月 테제’는 당시 한국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 이해의 결정물이다. 물론 초기단계이니까 원숙한 사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과소평가해도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교수의 많은 지적에 본인도 동감한다. 그러나 개인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사회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여하튼 북한은 공산주의사회이다. 蘇聯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상황과 결합하여 나타난 하나의 체제상의 變異態(Variation)로 북한을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答 辯

梁性詒: 高교수는 이동휘派와 이르크츠크派를 동일선상에 놓았지만 양파는 구성원이나 구성원리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이르크츠크派는 공산주의건설을 목적으로 항일투쟁은 그 수단이었던 반면, 이동휘派는 민족독립을 목표로 공산주의는 수단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朴憲永이 이르크츠크派에 入黨했다는 사실은 후일 그의 정치적 행로를 결정짓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스탈린, 트로츠키 비유는 하나의 analogy 이지 큰 의미는 없다. 그러한 비유의 근거를 구태여 든다면 金이 승자이고 朴이 패자라는 점, 金은 권력조직에 민감했던 반면 朴은 이론이나 규범의 도식적인 면에 집착했던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朴의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수용이었다는 평가는 朴憲永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 당시 공산주의사상은 하나의 외래사상으로서 사상의 수입에 그쳤

지 사상의 토착화나 새로운 사상발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기에 그같은 평가를 내렸다.朴의 모스크바 공산대학 입학여부는 저작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도 다소 의문이다.朴이 만약 북한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가설은 하나의 역사적 가설이기에 문제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국 공산주의운동 실패의 복합적 요인의 하나로서는 중요하다고 보아 세워 보았던 것이다. 나의 가설은 만일朴이 북한에 있었다라면 보다 성공할 기회가 있었으리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1945년 이후朴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 사상과 경험의 연계성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 이 논문이 완전히 못하고 시론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양해있기를 바란다.

徐大肅 :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의 3형제 가족이다. 본래 우리나라의 혁명가, 민족운동가는 이름이 많다. 김일성도 김영환, 김동환, 김일성, 김성주 등으로 알려져 있다. 「M-L 派滿洲總局」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金이 日警에 처음으로 잡혔을 때 쓴 조서를 보면 毓文中學校 學生 金成柱로 기록되어 있다. 金 자신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처음에는 친구들이 자신을 한별(一星)로 불렀으며, 1931~32년 사이에 日成으로 改名하였다고 한다. 보통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김일성은一成이라는 이름이 많다. 「朝鮮之光」에 金一成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사람은 「김경재」이다. 공산주의계통의 운동가로는一成, 一星, 日成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많지만, 다 조사해 보아도 현재 북한의 김일성만큼 싸운 사람은 없다. 이들은 대개 1930년 이전의 인물들로 1912년생인 북한의 김일성과는 연대가 맞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로는 滿洲 5·30 사건 당시 龍井에서 나팔을 불고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김일성은 「김근」이다.

金日成은 물론 中國共產黨 지도하에 있던 東北抗日聯軍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滿洲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韓人들은 中國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만주일대에서 韓人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밑에 들어가 싸웠다. 그 결실 중의 하나가 延邊自治區이다. 金은 蘇聯에 들어

가 88연대 소속으로 있었다. 이 연대에는 韓人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속해 있었다. 김일성, 김책은 대위였고 최영진이 소좌였다. 해방후 北에 진주한 치스차코프上將은 본래 레닌그란드전투에 참전했던 군인으로 1945년 6월 25일에야 연해주로 온다. 그 부하가 로마넬코소장이다. 주둔군과 김일성은 처음에는 서로 몰랐으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1945년 6월~8월 사이에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둔군의 일원으로 온 이그나티에프대령이 金을 부각시켰고 바로 그가 오늘의 김일성을 만든 인물이다. 이그나티에프와 로마넬코 두 사람이 처음부터 金을 지원했으며, 1945년 10월 14일의 집회는 ‘소련군 환영대회’였다. 이 모임에서 ‘한국의 애국자’로 김일성이 소개되었으나 너무 젊어 사람들은 그를 가짜라고 생각했다.

北韓을 공산주의의 한 變異로 보는데는 반대한다. 우선 그는 헌법을 준수 해본 적이 없으며 모든 요직에는 김일성이 추천한 사람만이 임명된다. 그것은 공산정권이 아니다. 金의 개인왕국에 불과하다.

朴憲永은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다니지 않았다.

(이후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梁好民 : 朴憲永이 美國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하다가 냉전이후부터 제국주의국가로 불렀다는 것은 과도기에 나타난 사상적 혼란으로 보아야 한다. 또 그의 사상이 원숙할 수가 없다. 서양과 같은 사회주의의 知的 뿌리도, 사상적 논쟁도 없는 실정이었고 더구나 오랜 지하투쟁하에 사는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사상의 知的 연마는 기대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 朴이 평양에서 활동했어야 했다는 가설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우선 그때도 서울이 모든 면의 중심이었고 누구도 분단이 장기화되리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서울에 활동이 집중되었다. 당시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蘇聯에서 朴을 몰랐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던 蘇聯領使조차 朴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형편에, 설사 朴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蘇聯側이

그에게 주도권을 부여했으리라는 추측은 어렵다. 蘇聯의 주변국가 소비에트화 과정을 보면 거의 蘇聯에서 데리고 간 사람에게 정권을 부여하였다. 蘇聯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장투쟁경력을 갖고 있는 金日成이 잘 알지도 못하는 朴憲永보다는 훨씬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통성문제는 지나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코민테른 시대에는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정통이며, 스탈린시대에는 스탈린의 인정을 받으면 정통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도 그 나름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정권을 획득하면 공산주의국가이다.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강령으로 삼아 정책을 단행하는 공산국가이다. 김일성의 독재, 개인왕국이지 공산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스탈린을 비롯하여 독재자아닌 사회주의지도자가 있었는가? 그런 기준으로 북한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반대한다.

김일성도 나름대로의 투쟁경력이 있지만 최근 북한에서 나온 그의 傳記는 너무 과장되어 믿을 수가 없다. 사실과 과장은 구분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徐大肅 : 당시 서울駐在 蘇聯領使 샤프신의 부인이 지금도 생존해 있으며 얼마전에 그 부인을 모스크바에서 만났다. 그 때 샤프신은 평양으로 가 조선공산당이 서울에 있으며 그 지도자가 朴憲永이라는 점을 알리고, 朴도 北에서 蘇聯軍政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나 김일성을 부각시킨 나티에프대령이 반대하여 朴의 참여는 좌절되었다. 朴이 평양에 갔더라면의 가설은 그곳에서는 싸움을 벌일 기회가 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梁性結 : 金日成政權이 1인독재라는 점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반론을 표시한다. 그의 독재, 우상화는 북한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보아야지, 그 특수성이 공산국가를 부정한다는 지적은 무리라고 본다.

李光麟 : 소련이 김일성을 택했다는 것은 역시 蘇聯이 美國에 비해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연구하여 이미 事前知識을 충분히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張公子 : 서교수는 김일성이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열망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죽은 공산주의자들이 바랐던 공산정권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이며, 그것은 金이 현재 이룩한 북한공산주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인왕국을 세운 金의 40년 집권비결은? 金日成만큼 北에 대한 공헌도, 혁명참가 경력도 없는 金正日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할 장래에는 김일성에 대해 쌓인 누적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은 없는가? 즉 김일성 왕국이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공산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는가?

徐大鼐 : 민주주의국가라고 하여도 어느 한계는 지켜야 민주주의라고 불러주듯 공산정권도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야 그 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산정권이라면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을 위해야 하지만 북한은 전혀 그런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李光麟 : 현 공산국가들 중 인민의 대표로 엘리트가 선출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徐大鼐 : 東歐국가들 중에는 많다. 공산주의라고 다 無法은 아니다. 우리가 북한을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라고 한다면, 공산국가의 일반적 속성을 독재라고 한다면, 독재국가는 모두 공산국가인가? 金正日체제를 단순히 보아서는 안된다. 1974년부터 등장한 김정일은 그간 실책도 많이 범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체도에 접어들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한 사람의 체제가 아니라, 김일성의 빨치산그룹 세대의 아들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체제라는 점이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정부는 강건의

아들인 강성산이 국무총리직을 장악하고 있다. 강건은 6·25 당시 北의 육군 총참모총장을 지낸 인물로 과거 滿洲의 東北抗日聯軍 第2軍에서 김일성의 직제부하로 있었다. 군대는 오극렬이 장악하고 있다. 오극렬은 오중흠의 아들로 오중흠의 4 형제는 모두 滿洲에서 김일성부대 소속으로 싸우다 전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인 손성필은 강양욱의 사위이다. 단순한 개인반란으로 그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은 오류이다.

梁好民 : 김일성은 분명 개인숭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例는 스탈린 시대에도, 文革期の 毛澤東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스탈린이나 毛의 정권을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물론 현재 東歐共產圈의 일부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다원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대체 북한을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徐大肅 : 공산주의의 운영방식, 체제가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본규칙은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스탈린도 자기자식을 내세우지는 못했다.

金鎮轍 : 북한이 공산주의냐 아니냐는 이 논쟁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서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개념규정이 있어야 했다. 사회주의와 독재국가는 그 정치·경제 형태에 있어 상당히 차이진다. 오늘날의 Neo-Marxist 들은 현존하는 공산국가를 진정한 사회주의적 정치·경제형태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회주의국가로 간주한다. 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일체 무시되고 있다. 혹평하는 사람들은 현 사회주의국가를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정도이다.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차이는 노동통제를 국가 또는 기업이 하느냐 정도의 차이라고 본다. 그같은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면 토론은 끝이 없어진다.

이희덕 : 오늘날의 북한과 같은 특이한 체제가 형성된데는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500년이상 지속된 朱子學이라는 전통정치사상과 외래정치사상의 충돌에서 과거유산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적용, 연장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우리의 유교적 전통이 살아남아 남북한이 각각 받아들인 외래사상과 접목되는 과정에서 北에는 공산주의의 파행성을 南에는 민주주의의 미성숙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지? 북한공산주의연구에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徐大庸 : 북한연구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중에서 1945년 이전의 김일성에 대한 자료는 주로 日本軍隊, 警察에서 나온 기록이 유용하다. 또 中國共產黨이 이 시기의 전투 및 투쟁기록을 출간한 자료도 좋다. 1945년 내외에 관한 것으로는 蘇聯에서 나온 「朝鮮解放」이 적합하다. 여기에는 北韓解放에 관련된 점령군으로서의 상세한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1945~50년간의 연구는 소위 美軍의 「노획문서」와 당시 蘇聯軍政에 참여한 蘇聯인의 저작이나 증언이 가장 좋다. 蘇聯領使 사프신의 부인이 출간한 「南朝鮮 1945~46年」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6·25 이후 북한 내부의 파쟁에 대해서는 「金日成選集」 4個版을 서로 대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 관한 자료는 역시 북한에서 나온 자료가 가장 좋다.

李光麟 : 서교수는 日本人 와다 하루끼의 저서를 인용했는데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했는지?

徐大庸 : 와다 하루끼는 東京大學의 蘇聯研究學者이다. 그는 蘇軍이 북한에 진주하기 훨씬 전에 로마넬코가 연해주에서 김일성을 발탁하여 北에 들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내세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치시차코프는 1945년 6월 25일 모스크바로 불려가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에 진주할 것을 지시받는다. 로마넬코는 당시 치시차코프와 줄곧 전

선에 있었다. 7월이 되어야 연해주로 오는 이들이 金日成을 만났다고 하여도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와다씨의 가설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

第4會議

司會：金河龍

發表：山田辰雄，洪廣燁

討論：李炳柱，黃炳茂

通譯：秋月望

發 表

山田辰雄：이 논문은 共產主義와 非共產主義의 성공, 실패의 조건 및 정치구조를 제 1차 國共合作을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공산주의의 최종목표를 감안한다면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두 정치체제는 국제정치나 국내정치에 있어 평화적 공존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최종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채택하는 전략전술 및 정치체제는 구체적 정치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 바로 그 정치환경때문에 양체제의 일시적 공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내, 국제정치상의 어떤 환경이 양체제의 공존을 가능케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현대정치학의 중요과제라고 보아 이 문제를 중국의 제 1차 국공합작을 통해 분석하려 한다. 논문의 주안점은 국공합작의 붕괴원인, 국공합작시 주도권의 소재라는 두가지 문제에 두어 정치구조의 관점에서 파악하려 하였다. 즉 국공합작의 정치구조를 黨, 軍, 大衆組織의 조직적 기반에서 분석하고, 그러한 역학관계로부터 국공합작의 붕괴를 설명하는 것이다.

혁명이라는 급격한 변동의 시기에 있어서는 정치적 제도화의 정도가 낮은 반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도의 권위보다 군대나 대중조직의 물리적 힘, 개인의 지도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공합작의 정치구

조를 黨, 軍, 大衆組織의 세가지 조직기반 위에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軍이나 大衆組織이 물리적 힘을 보유한 반면, 黨은 그것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黨의 권위는 군과 대중조직의 연계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국공합작을 3개의 시기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제 1기는 1924년 1월~1925년 3월까지로 설정했다. 이 시기는 孫文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國民黨 조직내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반면 軍隊는 蔣介石과 客軍이, 대중조직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제 2기는 武漢-南京 대립시기로 설정하였다. 국민당좌파와 공산당의 협력은 물리적 힘이 없었던 국민당좌파가 군 및 대중조직을 제어할 수 없어 붕괴되고 이후 제 3기의 蔣介石-毛澤東 대결체제로 접어든다.

이상에서 본대로 국공합작의 붕괴원인은 어느 단일정파의 정책때문이라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던 각 당파의 대립과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권위의 제도화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孫文의 권위를 배경으로 삼은 국민당좌파는 孫文 사망후 약화된 지도력을 공산당과의 제휴 속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였지만 軍과 大衆組織의 대립으로 인해 완전붕괴되었다. 한편 공산당의 대중운동장악에 위협을 느낀 蔣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국공합작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였으며, 勞農組織을 배경으로 한 공산당은 대중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주도권장악을 노리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당시 중국의 일반적 정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洪廣燾: 현재 중공은 자본주의적 전환이라는 큰 변혁을 겪고 있지만 生産手段의 共有 또는 國有化로 이해되는 사회주의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또한 한때의 유행과도 같았던 毛思想批判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中共軍 하부층이나 연방자치구에서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 毛思想의 소멸을 예견하기에는 성급하다. 毛思想과 中共政權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毛는 탁월한 정치적 기술로 공산당정권을 수립했음은 물론 對蘇均衡 및 對美獨立性유지에 성공하였다. 공산당이라는 자기확신적이고 잘 조직된 집단을 최초로 공개비판케 하여 사회주의체제속에서의 불만계층을 제한적 이나마 해방시켰다. 권력계승면에서도 어느 특정인물을 정하지 않고 文革이라는 체제개혁운동과 그 담당세력에게 이양하여 사회주의사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는 哲人王(philosopher-king)이나 立法者(legislator)로 평가될 수도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역대 동양정치상의 왕조창업인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서양과 동양, 현대와 과거를 가로지르는 매우 복잡한 毛思想의 이해를 이 논문에서는 方法論, 理論展開, 東洋의 要素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毛思想은 論理實證主義나 社會心理學으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곤란하다. 이런 類의 접근법은 社會均衡論에만 집착하여 공산주의운동을 사회병리현상으로 보거나 기껏해야 毛의 정치기술의 성공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만다. 毛思想을 접근하는데는 베버의 카리스마論과 제3세계 정치학에서 문제되는 리더쉽이론이 적합하다. 理論展開상에 나타나는 毛思想의 특징은 그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상적 혼란이 미흡하였고 사회주의이론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毛思想의 가장 큰 특징은 동양적 요소, 즉 유교적 윤리관의 노정에 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라는 외래사상을 중국인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毛에게 있어 西洋文化는 혁명성과 과학성은 있으나 개인주의와 기술우위에 기울어 혁신성이나 실천성은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쳤다. 따라서 그것은 동양적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다. 表象(representation)을 중시하여 上部構造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 과학보다는 혁명을 중요시한 사실, 사상의 字句보다는 意味를 살려가는 점은 모두 동양적 요소의 깊은 개입을 보

여주는 例라고 하겠다.

결국 毛思想은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자로서 가지는 보편적 특성, 즉 변증법적 사유와 동양적 특성의 결합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변증법적 사유는 헤겔, 마르크스의 철학에서 유래했다고 보기 보다는 세계의 모든 민중문화에 깔려있는 부정적 사유와 모순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Paul Lequerre의 말대로 “모든 개념상의 접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歷史象의 창조를 가능케 한다.” 결국 毛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도입하여 중국전통상의 혁명적 부분과 접합을 시도한 인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討 論

李炳柱 : 山田교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다. 山田교수는 國共合作의 붕괴요인을 정치조직의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지만, 사실 合作이전부터 이미 붕괴의 씨앗을 안고 있지 않았겠는가? 國民黨右派, 共產黨의 陳獨秀는 합작에 반대하였다. 共產黨은 孫文의 지배능력을 혁명에 이용하고, 國民黨左派를 분리하여 국민당의 해체모니를 장악하려는 전략에서 合作에 임했던 것이다. 물론 코민테른의 합작지지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다만 孫文의 生時에는 그의 권위에 의해서 이같은 전략전술의 추진작업이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다.

蔣介石의 군대장악도 그의 능력이나 배경의에도 국민당좌파의 무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25년 孫文사망 후 그의 정치적 권위를 계승한 인물이 없어 좌파를 중심으로 한 지도세력이 당내에 확립되어 있었다. 汪精衛 등의 좌파세력이 처음부터 군대통솔능력도 없었으며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蔣의 군대장악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국민당좌파가 孫文의 계승자라는 지적도 의문스럽다. 평소 孫文은 대중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당좌파는 대중조직의 하부구조에 자기세력을 부식시키지 못했다. 대중조직의 하부구조는 공산당이 장악하였다. 국민당좌파

가 보여준 정치행태, 이념 등은 그들이 孫文의 계승자라는 지적울 의식스럽게 만든다. 이처럼 좌파의 세력기반이 취약하여 결국 공산당에 밀린 것은 아닌지?

蔣介石도 쿠데타이전까지는 左派에 가까웠다. 廖仲愷의 암살당시 그는 “廖仲愷의 죽음은 反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들이 적”이라는 발언을 한 바있다. 여기서 이들이란 국민당우파를 말한다. 그러다가 中山盤事件의 성공 이후 浙江財閥을 비롯한 우파와 연결된다. 이는 우파조직이 강대했기 때문에 대중조직이나 공산당의 신망을 얻기보다는 우파에 기울었던 것이 아닐까? 즉 당시 사회구조가 孫文, 國民黨左派의 理想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파와 제휴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당시의 사회구조와 각 정파의 이상이 갖는 현실적 가능성 또는 연계성의 분석이 아울러 진행되었어야 한다.

共產黨도 군대장악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다. 당시 黃浦軍官學校 내에는 우익학생단체인 「孫文主義學會」와 공산주의단체인 「青年軍人聯合會」가 대립하여 파벌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蔣의 장악으로 끝났다. 共產黨은 黃浦軍官學校를 장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홍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몇가지 비판과 질문을 하려고 한다. 홍교수는 먼저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선 毛의 원전을 인용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毛思想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그 다음에 방법론상의 접근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이 논문으로는 홍교수가 毛思想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논문에서 “…毛思想은 東洋과 西洋…가로지른다”라는 句節이 있는데, 이는 毛思想이 그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모두 극복·지양했다는 뜻인지? 홍교수는 毛를 사상가로서 보았다. 그러나 毛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용한 사회주의 실천론자 또는 전략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毛思想에 동양적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일면 동의하지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毛思想에

민족주의적, 동양적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외래 사상을 중국인에게 설명할 때는 중국적 용어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을 들어 毛思想에 동양적 요소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黃炳茂 : 山田교수의 분석에는 국제정치의 변수가 빠져있어 아쉽다. 국공합작당시는 공산당의 노선정착이 안되어 있었고 국민당좌파의 노선도 불분명하였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 국민당 모두는 코민테른의 영향력을 깊게 받고 있었다. 蘇聯에는 스탈린-부하린派와 트로츠키派가 서로 대립하며 중국에 대해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에게 국민당붕괴를 위한 당내합작을 권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산당의 개인자격입당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트로츠키는 黨對黨의 합작이 아닌 여하한 형태의 합작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결국 트로츠키派는 볼셰비키黨內 열세로 인하여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 중국공산당이 과연 얼마나 독자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었는가 의심스럽다. 코민테른도 국민당좌파에 대하여 보로딘(Borodin)은 北京장악론을, 로이(Roy)는 지방기지강화론이라는 엇갈린 지시를 내린다. 결국 처음에는 보로딘의 노선을 따르다가 실패를 겪고 다시 로이의 노선을 따르게 된다. 중국공산당, 국민당좌파에 대한 국제정치상의 영향력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구조로도 山田교수는 당, 군, 대중조직의 세 요소를 상정하였는데, 너무 단순화된 분류가 아닐까? 국민당좌파 내부의 파벌대립이 국공합작붕괴의 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당좌파의 파벌대립이 국공합작의 종결에 끼친 영향력은? 마지막으로 제 1차 국공합작의 실패가 중국공산당에게 제시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내 견해로는 그 실패가 공산당의 독자적 노선확보에 기반을 제공했던 것으로 본다. 즉 제 2차 국공합작의 黨對黨 합작에 기반이 된 것으로 본다.

홍교수가 제시한 毛思想理解의 세가지 관점은 공산주의의 中國化過程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관점만 제시하다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이 되어 분석적이지 못한 결점을 지닌다. 자신의 관점에 분석개념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예를 들면 毛의 歷史觀, 價值觀, 社會觀, 革命觀 등 정치학적 기본개념이 추가되고 여기에 세가지 관점을 투영시키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또 毛思想의 동양적 요소를 지적하기 보다는, 毛가 Chinese Marxist 인지 아니면 Marxist Chinese 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합당한 접근법으로 생각된다.

答 辯

山田辰雄: 먼저 李교수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國共合作은 물론 처음부터 붕괴원인을 내재하고 있었다. 國民黨의 左右派, 共產黨은 서로 상대를 흡수하려는 의도였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國民黨은 약체정권으로 붕괴위기에 몰려있었기 때문에 대중조직을 필요로 하였으나 자체의 대중조직은 매우 취약하였다. 따라서 공산당이 갖고 있던 대중조직을 援用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민당 지도자들은 蘇聯의 '新經濟政策'으로 蘇聯의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였다. 중요한 것은 孫文의 리더십이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여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제도보다 개인의 권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하였다. 兩側이 서로를 흡수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국공합작을 통해 어느쪽이 더 이익을 얻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은 당세력의 확장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당도 지방정권, 군벌의 정벌이라는 이익을 얻었다. 국민당파파도 軍의 중요직위에 있었다. 그러나 civilian control은 안정상황에서야 가능하지 격동기에는 군대지휘자가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로 그점이 蔣介石으로 하여금 실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국민당파파중에서도 勞農運動을 중시한 사람이 있었지만 勞農運動의 組織化를 직접 시도하지 않고 공산당의 조직을 빌려서 피했다

는 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물론 孫文도 대중조직의 기반은 약했으나 개인적 권위로 보충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당좌파의 지도자들은 그런 권위가 없었다. 국민당좌파를 孫文의 진정한 후계자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쟁점은 孫文의 계급적 기반이 어디 있었느냐는데 있다. 中國에서 계급투쟁이 격화되었을 때 孫文은 어느 때는 농민층의 입장을 또 어느 때는 지주층의 입장을 두둔하는 등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당좌파는 孫文의 全面的 후계자로 보기는 어렵고, 孫文의 多面的 사상에서 階級調和라는 측면을 계승했다고 본다.

黃교수가 지적한 정치구조의 단순화는 본인도 동의하지만, 국공합작 전체를 정리·이해하기 위해 단순화시켰다. 코민테른 및 스탈린-트로츠키 대립의 영향력은 국공합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22년 8월 杭州에서 있었던 中國共產黨 擴大會議에서도 코민테른의 마링(Maring)은 합작을 지지하였다. 스탈린-트로츠키의 갈등 및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문헌이 많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제 1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도 공산당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제 2차 국공합작은 성립되었다. 그것은 국민당이 공산당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성립된 일이 아니다. 여타의 객관적 상황이 합작을 강요하게끔 만들었기에 이루어졌다. 이를 현재에 적용시킨다면 현 대만정부도 중공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에 합작을 거부하지만 외적 변수가 있을 때는 찬성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洪廣燦 : 毛思想의 이해에는 헤겔·마르크스적 전통을 아는 것 못지 않게 중국고전의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毛思想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발표한 모든 著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戰術까지도 모두 포함시켜 이를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작업에서 물론 분석적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은 안정된 정치구조의 설명에 합당하다는 결점을 지닌다.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의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강조된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러한 생각에 따라 종합적 방법을 동원하여 毛思想의 이해를 꾀하였다. Aristotle이 말했던 政治學은 여러 분절되는 現象, 事象을 하나로 통합하는 학문이다.

(이후 질문은 참석자전원에게 개방된다.)

사무엘 金 : 공산주의사회의 지도자 및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데는 언제나 자료와 방법론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 순서는 우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또는 구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거꾸로 되어있다. 먼저 자료를 거론하고 다음에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중공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료와 방법론의 문제를 재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徐大肅 : 山田교수는 국공합작에 코민테른이 많이 기여했다고 지적하였다. 보로딘(Borodin), 로이(Roy)가 국공합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여하였는가?

朴永錫 : 중국공산주의운동이나 사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중국의 고전, 역사,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서 공산주의수용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洪廣燦 : 사무엘 金교수의 지적에 동감한다. 본인도 중국의 고전 및 중국공산주의자들의 저작을 계속 연구하는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공연구 학자들의 2차자료에 많이 의존하였지만 이들을 비판적으로 소화하고자 하였다.

山田辰雄 : 보로딘은 국민당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24년 1월 國民黨 1大會의 선언문을 기초하였으며, 1925년 7월 국민당 廣東政府의 급진적 대중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는 주로 孫文, 汪精衛 등의 지도층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1926년 이후에는 영향력이 소실되었다. 특히 武漢政府時代 스탈린은 중국에 대해 國共合作의 유지와 대중운동의 가열화라는 이율배반적인 지시를 한다. 보로딘은 여기서 국공합작의 유지라는 타협방법을 제시하였다. 로이(Roy)는 코민테른에서 레닌과 식민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인물이다. 그는 국공합작 말기에 중국에 왔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고 다만 스탈린의 지시를 전달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로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第5會議

司會 : 崔相龍

發表 : 張達重

討論 : 金鴻洛, 吳正萬, 申熙錫

發 表

張達重 : 본 논문은 戰前, 戰後를 통하여 일본좌익운동이론과 조직의 전위집단이었던 학생운동이 1970년대를 고비로 소멸해 간 과정을 분석하려고 한다. 1918년 東京大 法學部生會 중심으로 한 ‘新人會’의 탄생을 모체로 하는 일본학생운동은 1948년 9월 ‘全學連’의 결성을 기점으로 하여 강력한 대중운동단체로 등장하였다. 초기에 全學連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발전되어 왔으나 공산당이 대중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1958년 11월 결별을 선언한다. 공산당에서 제명된 학생들이 스스로 ‘革共同’과 ‘共產同’을 조직하며 일본학생운동은 新左翼의 시대로 옮겨갔다. 共產同이 일본 자본주의를 공황의 前段階에 와 있다고 규정한 반면 革共同은 현대 국가독점 자본주의가 공황의 폭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共產同은

1960년 安保鬭爭의 패배를 놓고 다시 분열되어 共產同, 革共同, 社靑同의 3개 조직이 학생운동의 주류를 이끈다. 그후 革共同은 다시 ‘革마르’와 ‘中核派’로 나누어진다. 中核派는 대중운동주의적 학습회주의를 강조했지만 革마르派는 혁명적 케른조직의 강화와 동시에 노동운동을 전투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조합내의 혁명적 프락션형성을 강조하였다. 이 와중에서 共產同은 해체되고 1966년말부터 全學連은 中核派, 社學同, 社靑同 解放派의 3파가 지배한다. 그러나 이 3派 全學連도 1967년의 羽田투쟁 이후 내부대립이 표면화되면서 1969년에는 共產黨 民靑系, 中核派, 革마르派, 解放派에 의한 4派 全學連시대로 접어든다. 이제 新左翼 學生運動은 共產同을 중심으로 한 1960년의 安保鬭爭과 3派 全學連을 중심으로 한 1967년의 反戰鬭爭을 거쳐 1968년 후반부터는 ‘全共鬭’에 의한 대중적 학생운동으로 변모되었다. 全共鬭에 의한 학생운동은 비당파적인 학생대중의 봉기라고 하는 점에서 당시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新左翼運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全共鬭도 와해되고 1970년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은 급속히 그 세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로 학생운동의 지지기반이 상실되었던 외에도, 돌파구를 찾던 학생운동이 과격한 무장투쟁으로 돌입함에 따라 대중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학생세력은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였고 학생들의 사고는 소비문화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討 論

金鴻洛 : 日本新左翼, 특히 학생운동이 과격화되었던 1960年代의 분석에는 국제적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日本 국내정치상의 문제점도 파악해야 한다. 安保鬭爭, 韓日國交正常化 沮止鬭爭, 越南戰, 오키나와 반환, 美日 安保條約 沮止鬭爭 등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국내정치상의 문제점이었다. 학생운동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그 시대의 정치상황에 적응해 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방법이 좌익학생운동으로 채택된 과정, 즉 학생운동의 생성 및 소멸에 대한 국내정치상의 배경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全共闘가 짧은 시간내에 해체된 배경도 그들이 설정했던 국내정치상의 투쟁대상이 70년대에 들며 해결, 소실되었다는 데 있다.

討 論

吳正萬 : 신좌익운동과 全共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 신좌익의 기본입장은 혁명수행을 위한 조직의 최대한 구성의 일환으로 前衛黨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全共闘는 조직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우익과의 관계, 60~70년대 시민운동과의 관계도 지적되었어야 할 점이다. 학생들이 신좌익운동에 빠져든 원인을 알려면 왜 당시 우익은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익과 좌익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익 및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의 공통점, 차이점의 부각이 없었던 것도 아쉽다. 학생운동의 쇠퇴에는 물론 사회문제의 해결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폭력화로 인한 학생 및 반체제파의 이탈, 학교와 정부측의 강경한 대응도 큰 영향을 미쳤다.

申熙錫 : 이 논문은 과정에 대한 설명은 뛰어나지만 원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학생운동파벌의 이합집산, 운동의 변천 및 소실의 원인, 이같은 현상이 받아들여진 당시 일본사회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소홀하였다. 특히 일본학생운동의 연구에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는 제3기의 분석이 중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가볍게 다루어졌다. 제3기의 시기에는 일본에도 일종의 知的 르베상스가 일어나 지식인의 존재가 중요시되었던 특징을 보인다. 인간소외의 회복, 휴머니즘 구현, 대학민주화 등 戰後 일본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문화적 제 측면을 성취하려는 지식인과 학생의 욕구가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요인의 설명도 아쉽다.

答 辯

張達重 : 일본학생운동의 분석에서 대내적 요인이 빠져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논문을 쓸 경우에는 늘 어느 한쪽에 초점을 두게 마련이지만 나는 여기서 대외적 요인에 비중을 두었다. 물론 일본학생운동의 발생 및 쇠퇴를 국내정치로 설명해야 할 것인지 국제정치로 설명해야 할 것인지는 나도 의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만은 지적할 수 있다. 일본 정치문화의 특징중의 하나는 외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복제판이라 할만한 사건을 국내에서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프랑스 5월 학생운동은 일본의 학생운동으로, 니슨스캔들은 田中스캔들로 복제되어 나타났다. 일본학생운동을 대내적 요인에서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 또 있다. 田中스캔들이나 三島由紀夫事件은 일본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지만 여기에 학생운동이 결합되지 않았다. 申교수는 1960년 말을 지식인사회의 르네상스로 보았지만 나는 쇠락기로 본다.

全共闘의 분석이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나도 동감한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 연구·보충해 나가겠다. 그러나 赤軍派 등에 이르러서는 이미 학생운동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아 다루지 않았다. 全共闘의 실패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赤軍派도 학생운동의 줄기로 볼 수 있으나, 학생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대중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赤軍派를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것은 대중성을 상실한 과격집단 운동이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좌익투쟁의 주류는 과거 全共闘에 참여했다가 좌절된 학생들이 셀러리맨의 위치로 변신하여 활동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의 모순의 해결에 따라 학생운동이 소멸된 것이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조심스럽다. 여하튼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후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이 영 : 신좌익과 노동운동의 관계, 노동운동에 대한 신좌익의 태도는?

洪廣燁 : 선진국에서는 민족주의가 우파의 이데올로기인 반면 후진국에서는 좌파의 이데올로기인 것이 보통이다. 이 회의에서 계속 일본공산당의 민족정당화를 지적하는데, 일본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는?

張達重 : 신좌익의 노동자에 대한 기본입장은 先區性理論과 生産性理論으로 요약된다. 두가지 비슷한 논리로 학생이 노동자, 농민에게 위기의식을 경각시키고 대중활동에 동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즉 학생이 노동자운동을 지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의 좌익정당은 학생을 노동자, 농민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결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全共闘 이후에는 학생운동이 노동자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두번째 질문은 김홍락교수에게 답변을 부탁한다.

金鴻洛 : 戰前에는 일본공산당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라 민족주의보다는 국제공산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戰後에는 中蘇紛爭, 蘇日 및 中日의 共產黨 對立을 통해 일본공산당도 독자적 노선을 주장한다. 이제 일본공산당은 유로코뮤니즘의 노선에 보다 가까와 민족주의정당으로서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공산당의 민족주의적 성향은 세계적 경향이다.

崔相龍 : 이 발표에 대해 두 日本人교수의 의견을 듣고싶다.

中村勝範 : 日本에서는 신좌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과격파라는 용어를 쓴다. 日本에서는 신좌익운동이 이미 소멸하여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별로 연구하지 않는다.

山田辰雄 : 1960년 安保闘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학생운동은 민족주의, 對美獨立 등이 의식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즉 美國으로부터 독립하여

일본정치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식이 바탕에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프랑스의 학생운동과 文革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세대차(generation gap)로 인한 학생들의 의식변화가 이면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합적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난 이 학생운동도 1970년대 경제발전에 따른 제도순이 극복되면서 기존체제로 흡수되었다.

金國振 : 장교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학생운동의 격화에 대한 관련성을 지적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발전상황이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해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는가?

張達重 : 한 마디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정치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중산층의 형성이 따라야 한다. 현재의 실정은 중산층의 형성이 어렵게 되고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자본주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第6會議

司會 : 梁好民

發表 : 劉載天, 李炳赫

討論 : 朴商台, 元佑鉉

梁好民 : 두 논문은 성격이 전혀 달라 한 분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을 하고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다.

發 表

劉載天 : 이 논문은 작년 제 1차 한중일 정치문화비교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연장이다. 작년에는 東亞日報에 실렸던 사실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공산주의 수용과정을 살폈지만 이 논문은 당시 대표적

사회주의계열 신문이었던 朝鮮日報를 통해 그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920년 1월 6일 친일단체였던 大正實業親睦會가 창간한 조선일보의 경영난으로 민족진영이 관권을 인수받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신문으로 변신한다. 그것은 民族單一戰線을 내세운 新幹會의 주요 간부가 조선일보의 간부들이었으며 新幹會 支會도 대다수가 조선일보의 지사와 지국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는 것과, 공산주의자들이 편집진에 다수 종사했었기 때문에 강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당시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을 「朝鮮勞農總同盟」, 「朝鮮青年總同盟」, 「北風會」, 「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 「朝鮮共產黨事件」 등의 조직운동 관계기사, 勞農運動, 마르크스사상 및 사회주의 수용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선일보는 각종 공산주의운동과 관련된 結社體와 조직활동에 대해 이를 고무하는 입장을 취했다. 둘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다르지만 제국주의와 항쟁하는 것은 공통된 임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방향설정과 더불어 조선일보는 우파민족주의세력을 강력하게 배척하며 좌파민족주의세력과 공산주의세력과의 협동전선인 新幹會의 결성을 보게 된다. 셋째, 勞農運動을 계급투쟁으로 인식하여 무산자계급의 해방을 전제로 삼았다. 그 방향은 자본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일체의 생산 및 소비제도를 국유화하여 공산적 사회조직으로 개조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小作爭議와 같은 농민운동이 성급하게 정치적 경향을 띠는 것은 경계하여 단계적인 농민운동의 이행을 꾀하려 하였다. 넷째, 주로 일본의 공산주의 사상이 및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 일본을 통한 공산주의이념의 수용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색채도 1928년경부터 시작된 총독부당국의 사상범 취체강화에 따라 점차 퇴색되었고, 특히 1931년의 新幹會解散과 日帝의 만주침략에 따른 한반도 병참기지화정책에 의해 사라지고 만다.

討 論

元佑鉉 : 1919년 3·1 운동 실패후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이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공산주의에 심취했다는 것이 일반적 연구결과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회주의사상을 항일투쟁에 원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의 전파에 목적을 둔 것인지 분명히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산주의자들이 배격했던 민족주의우파의 노선도 결국 일본에 어느 정도 협조하여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나름대로의 생존논리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의 사회주의경향은 日帝의 새로운 식민지정책에 대한 대응 논리로 나온 것은 아닌가? 1927년 新聞法에 저촉되지 않는 15~6종의 잡지에서도 사회주의사상의 고취 및 전파를 목적으로 한 논설, 사실은 많다. 이러한 신문이나 잡지와 비교하여 조선일보는 어느 정도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가? 抗日의 차원에서 여타紙와 비슷한 수준인지 아니면 뚜렷한 강도를 가지는 것인지?

朴商台 : 이 논문에서 채택된 사실이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된 모든 사실은 아니라고 본다. 전체사실중 사회주의관계 사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 하는가? 이런 류의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증명이 어렵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인물이나 史料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사회개량주의를 배격하였다는 지적은 사회주의관계 사실에서 배격되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조선일보 전체의 논조에서 거부되었다는 의미인가?

答 辯

劉載天 : 여타 신문 및 잡지를 모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東亞日報와 비교하면 분량이나 그 내용상의 심도면에서 분명 사회주의적 경향이 짙다. 예를 들면 小作爭議의 경우, 동아일보는 지주, 소작인의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점진적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조선일보는 소작쟁의의 궁극목표를 소작인해방에 두고 자체역량이

확보될 때까지 전략적으로 농민의 생활기반확보책을 제시하였다. 中央日報과 비교해도 사회주의적 성향이 짙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천착하여 하나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하도록 하겠다.

두 교수는 조선일보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니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물론 조선일보에 게재된 논설 및 기사 전체의 경향이 사회주의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조선일보에 나타난 사회주의관계 사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궁극적 목적을 무산계급해방에 두고 있다. 사회주의의 소개 및 고취 記事를 항일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국주의타도 및 민족해방을 위해 사회주의가 원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사회주의사상, 사상가, 운동가 등을 소개하는 경우 궁극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무산계급의 해방이었다. 조선일보가 반대한 개량주의는 주로 노동관계사실에서 나타난 논조를 근거로 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기본 논조는 적어도 대륙병참기지화 이전까지는 우파민족주의자의 개량노선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우파의 개량노선을 체제내에서의 자기생존을 위한 논리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해석은 대륙병참기지화 이후의 시기에 적용된다.

(이후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李光麟 : 사실 아직까지도 韓國新聞史가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유교수의 작업은 아주 고무적이다. 작년 발표시 유교수는 동아일보에도 사회주의관계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세계적 경향의 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조선일보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崔相龍 : 내가 보기에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상징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혁명, 해방 등을 주장한다고 하여 사회주의라고 모두

칭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의 핵심적 교의, 예컨대 국가사멸 등의 주장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했던 민족주의자가 과연 많았는가? 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구분기준은?

劉載天 :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사설은 양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서 항일에 관련된 것이 더 많다. 그러나 사상탄압이 심하던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분량이 실렸다는 것도 상당한 일이다. 양적인 것만으로 따지기는 어렵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구분은 아직 자신이 없다. 또 구분이 되더라도 그것을 저술중심 혹은 조직활동중심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梁好民 : 오랫동안 조선일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3·1 운동이 실패하고 민족주의 무장운동은 만주, 上海로 가고, 국내에는 공산주의자만이 남아 있었다. 일본에서도 공산주의자는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이 속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진 인물이 독립운동을 주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체로 20代의 인물들이 사회주의관계 논설이나 기사를 썼는데 이들은 아직 사상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 때로는 민족주의에 경도되고, 때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混雜되어 나타나는 등 방향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은 없고 투쟁적인 것은 분명하다. 조선일보의 필진에는 본래 사회주의자들이 많아 6·25 때 월북한 인물도 있고, 6.25 후에도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 있어 욕고를 겪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사회주의적 성향은 확실하다.

徐大肅 : 日帝强占時에는 반공정신이 없던 풍토라 일본에 반대하면 무엇이든 환영받았다. 또 민족진영은 3·1 운동의 실패 이후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본적 항일집단으로 공산주의자만이 남아 있었다. 이들이 현재 南

北에서 모두 소외되고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된다. 유교수의 논문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여러 신문을 참조하고 당시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건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신문만 보기보다는 日本에서 나온 「出版警察報」등을 참조하여 우선 사건의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공산주의운동은 신문기자들이 많이 하였지만 사실이나 기사에 실린 이름은 거의 가명이다. 이들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할 것이다. 新幹會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新幹會는 中國의 汪精衛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대리하여 스스로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주장을 폈었다. 공산당이 후일 이들을 제거하였다. 1920~30년대 항일독립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이 모두 외국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에 대해 신문이 많이 다루게끔 되어 있다.

梁好民 : 다음에는 李교수의 발표로 넘어 가겠다.

發 表

李炳赫 : 이 논문은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동반하며 궁극적으로 언어변화는 인간의 의식 및 행동까지 변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 기반 위에서 이데올로기를 독립변수로, 언어현상을 매개변수로, 인간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을 제시하여 그 모델의 구체적인 검증대상으로 북한의 사회전체를 채택하였다. 결국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수용이 어떻게 언어변화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의식의 개조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북한은 主體思想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한 이래 언어정책에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1966년까지는 한자폐지, 일부 표준어의 개정 등 일련의 언어정책상의 변화를 보였으나, 1966년 문화어를 표준어로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언어정책의 특징은 민족독립의 달성

의 일부로서 채택된 민족어형성에 촛점을 두는 점이다. 한편 1966년 이후의 언어정책 변화는 4가지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9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이 내세운 주체사상을 독립변수로 보았을 때 이 주체사상이 그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로서, 즉 매개변수로서의 언어현상, 특히 어휘분야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북한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어휘의 사용이 새로운 형의 인간, 언어와는 불가분의 종속변수로서의 인간의식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인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표출되어진 사회현상의 반영물이며,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확립된 사회관계의 형태가 어휘 및 그 의미를 결정짓는다.

討 論

朴商台 : 첫째, 모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처음에는 이데올로기를 독립변수, 언어를 매개변수, 인간의식을 종속변수로 다룬다고 했지만, 말미에 가면 언어와 인간의식 모두를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사실 이데올로기, 언어, 인간의식 중에서 temporal priority 를 설정하기란 어렵다. 이데올로기가 언어, 인간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정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 인간의식은 다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채택한 결정론적 모델의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둘째, 북한사회 전체를 다루면서 one-shot case study 를 하고 있지만 이 접근법으로는 변화를 알기 어렵다. 연령집단과 같은 control variable 을 도입한다든지, 시점을 여럿으로 나누고 시간변화에 따른 교육 및 언어정책의 변화를 보았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셋째, 이교수는 어휘의 내용을 4개로 분류하였는데 과연 어휘내용이 그렇게 상호배타적인가?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어휘를 어느 곳에 배치시키느냐가 이 연구의 관건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휘분류의 기준을 명백히 제시해야 했다. 넷째, 지나치게 목적론적으로 결론을 내린 감이 있다. 어휘내용에서

국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를 북한체제의 성격에 연계시켰지만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부각된 일반적 현상이지 북한만의 현상은 아니지 않겠는가? 어휘의 기원에서는 3,611개의 어휘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면서도 어휘내용에 보면 868개의 어휘만이 분석되었다. 이 차이의 원인은? 이 논문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성인의 경우는 그 변화도가 더 적지 않겠는가?

元佑鉉 : 모델설정의 전후관계가 어긋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이데올로기를 독립변수로 제시했으면서도 “...군사적 제도 및 이데올로기로 구성되는 국가...”의 분류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있다. 또 주체사상과 언어변화는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관계레벨이 맞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데올로기가 사회관계를 결정한다는 지나친 결정론적 논리에 서있다. 이데올로기에 따른 인간의식 및 언어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 물론 이 관계를 교과서분석에만 한정하는 경우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만, 그 분석을 이데올로기——언어——의식의 변화관계에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본다. 차라리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의미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그러한 변화관계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교수는 명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명사보다는 의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언어 자체를 메시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소통능력 및 그 배경이 되는 문화 속에서의 언어의 사회적 의미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언어분석을 이데올로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촛스키 등이 말하는 언어구조의 恒常性에 대한 상호작용법칙과 대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언어변화를 너무 목적론적으로 보는 것 같다. 꼭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따라 언어가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사회에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정책의 변화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答 辯

李炳赫 : 본래 이 논문은 南北韓을 비교한 광범위한 내용의 일부만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세부사항의 누락이 있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어휘숫자의 변화는 그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두 분 모두 이 논문이 지나치게 목적론적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을 하였다. 물론 그같은 면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틀을 갖고 사회현상을 비교분석할 때 비교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앞에서는 그러한 비교기준이 어느 정도 목적론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모델 자체의 문제점도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나의 초점은 매개변수로서의 언어에 맞추어졌다. 사실 종속변수로서의 인간의식변화를 알기란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간의식이 변화되었다고 전제하였다. 언어문제를 너무 강조하여 언어가 종속변수로 보이게 된 것 같으나 어디까지나 언어를 매개변수로 상정하였다. 어휘내용과 관련된 범주를 12개로 선정한 것은 한 사회구성체의 제측면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물론 어휘가 상호배타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어휘의 분류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규정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행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에 그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찰이다. 또 분류방법 자체도 문제시 될 수 있지만 정의에 따른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상의 중복이나 혼동은 회피하였다. 목적론적 해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지적이 언어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 아니냐는 원교수의 반론이었다. 그 때문에 기준을 광복 이후에 두었다. 그 이래로 南北 모두 언어와 의식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의식의 변화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볼 수 없는 것으로, (from the visible to the invisible)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에 나타난 변화를 통하여 의식변화를 알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연발생적인 언어변화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언어변화도 구분될 수 있으리라고 보아 나름대로 유의미한 관계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사전에 수록된 어휘는 그 공동

제가 그때까지 제승해 온 규범적·이상적 어휘를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분석이론으로서 촘스키 등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촘스키의 주 관심사는 linguistic competence와 linguistic performance이며, 이를 위해 이상적 언어상황을 설정한다. 그는 인간이 언어구사능력에 의해 여타 존재와 구분된다고 했지만 그 능력을 단순히 인간의 내재성에 귀착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은 처한 공간적 환경에 따라 수많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 또 과거에는 언어를 sign으로 보아 *signifié*를 중시하여 semantics에 중점을 두었지만, 요즘에는 *signifier*를 중시하여 syntax에 촛점을 둔다. 따라서 말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signifié*는 *signifier*이었으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signifier*의 문제로 귀착되기에 명사분석을 채택하였다.

(이후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梁好民 : 중국의 경우 언어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劉家駒 : 중국도 이데올로기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대만과 중공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홍콩, 대만에는 ‘한 칼에 자른다(一刀絕)’라는 말이 없지만 중공에는 있다. 또 대만에는 水準이라는 말을 중공에서는 혁명성이 있다고 하여 水平이라고 쓴다. 홍콩과 대만의 경우는 홍콩에는 英語式 표현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대만은 아직도 漢文式의 표현이 우세한 차이를 보인다.

崔寬藏 : 문화적·민족적 동질성 회복문제는 중국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들은 대만-중공 분열 이전에 존재했던 말은 바꾸지 않고 양쪽에서 모두 그대로 쓴다. 大陸에서 홍콩,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이 짧은 기간동안에 동화되어 불편없이 생활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TV를 통해 본 바로는 평양말에도 함경도억양이 강하게 느껴졌다. 또 북한은 외래어의 한글화작업에서 중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유교수의 논문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 공산주의자들의 항일운동을 많이 지적하였는데 1920년대 중국공산주의자들도 대체로 항일의 차원에서 공산주의사상을 설파하고 있다. 이들의 글이 日語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되었을 것이며, 자연히 한국의 공산주의자들도 좌경사상에 대한 글을 게재할 때는 항일을 위주로 하여 발표하지 않았겠는가?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일 金 : 北京에 1년여 거주하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普通話 보급운동이 오랫동안 추진되었으면서도 지방에 가면 여전히 지방의 方言이 사용되고 있다. 公的으로는 北京語를 쓰지만 私的인 용무에서 北京語를 쓰면 멀시당한다. 반면 北京에서는 地方語를 쓰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徐大肅 : 1972년 북한의 新憲法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한 것과 평양방언이 표준어로 채택된 사실은 연결관계가 없어 보인다. 또 북한의 표준어는 평양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이다. 북한의 문화어는 표준어와 아주 유사하다.

第7會議

司會 : 安清市

發表 : 李範俊, 金國振

討論 : 李殷鎬

發 表

李範俊 : 이 논문은 베트남공산주의운동의 기원이 되는 1925년부터 1954년 제네바회담까지 공산당의 조직, 리더십, 전략전술, 국제공산주의와의 관계 등을 조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용과정을 분석하고, 1955년부터 1975년 적화통일까지의 베트남공산당의 전략전술을 간략히 검토

한 후 베트남공산혁명의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도입에서부터 ICP의 결성 및 1930년대 활동상, 2차대전과 對佛戰爭 그리고 통일전쟁을 거쳐 파악한 공산주의운동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베트남공산주의의 전략은 레닌주의, 毛澤東主義, 베트남主義의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외래의 공산주의사상을 수용·채택하는 과정에서 ICP는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과시하였고 바로 그러한 전략의 유연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의 이념과 경험을 모방·수용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상황에 적합한 전략만을 모방하여 한때 성공적인 전술일지라도 적실성을 상실하면 곧 포기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공산당지도층은 이념보다 전략적인 면을 더 중시하여 일반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사회계층의 연합전선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胡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하는 수단으로 공산화작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胡志明의 탁월한 리더쉽이다. 그의 조직력, 정치수완, 전략가로서의 기민한 행동은 베트남공산주의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胡의 死後에는 집단지도체제를 결성하여 권력투쟁으로 인한 공산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항세력으로서의 비공산주의 민족주의세력은 너무도 취약하여 이미 자체의 지리멸렬상을 보였다. 이러한 제요인의 결합으로 베트남공산주의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은 베트남의 고유한 상황과 이에 대응한 전략전술의 탓이지 여타 국가의 구체적 모델로 제시될 수는 없었다.

金國振 : 이 논문은 비공산 ASEAN 諸國內의 공산주의실패를 共產黨沿革, 공산주의운동 주도세력, 반정부 공산계릴타세력의 능력, 주요 전략 및 전술, 외부 공산당과의 연구관계,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공산세력의 적응과정이라는 여섯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 대상으로서는 공산당의 활동이 존재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이상 3개국을 선정하였다. ASEAN 諸國은 오랫동안 西歐帝國主義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발부터 민족주의세력과 공산세력 사이의 구분이 희박하였다. 공산당들은 毛澤東의 농촌중심전술에 따라 농촌이나 정글로 퇴각, 줄기찬 공산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식민지경험으로 인한 또 하나의 갈등요소로 종족분쟁과 국경분쟁은 공산세력의 중요 침투대상이 되었으며 자체내의 구조적인 사회모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ASEAN 諸國은 착실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공산당에 대한 평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적으로는 베트남과 중공의 갈등으로 중공은 ASEAN 諸國의 공산당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전략상의 결함으로 인해 공산세력의 토착화에 실패하였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장기 집권으로 큰 신장세를 보였으나 현단계에서 ASEAN 諸國의 공산당들은 체제전복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ASEAN 諸國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점이 계속 남아 있는 이상 공산주의운동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討 論

李殷鎭 : 베트남에 관한 1차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논문은 대체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토대로 시각상의 균형을 잘 짜 놓았다. 베트남語를 모르는 관계로 생긴 용어상의 혼란도 몇 군데 보이지만 사소한 문제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 논문은 주로 胡志明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베트남공산화과정에는 胡志明 외에도 데 두 안, 보 구엔 지압, 환 반 등이라는 뛰어난 군사전략 및 정치참모가 있었고, 이론가들의 보좌도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했다. 胡志明을 민족주의자로 볼 것인가 또는 공산주의자로 볼 것인가는 논란이 많지만, 나는 그가 민족주의자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전쟁 당시 월남의 고위공직자도 사적으로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으며 월남인들도 그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여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胡는 1차대전후 西歐列強이 월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국주의적 재분할을 획책하려 하자 공산주의에 경도된다. 그러나 그 동기도 레닌의 식민지문제에 대한 테제에 감복한 것이지, 레닌이나 공산주의이론 자체에 감복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 작업을 확장하여 한국공산주의운동과 비교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국진교수의 논문은 관련자료의 조사 및 검토가 미진한 느낌이다. 이 논문은 처음부터 싱가포르, 印尼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현저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시켰지만, 사실 필리핀을 제외하면 말레이시아나 泰國의 공산주의자 숫자도 미미하다. 아직 싱가포르에는 200~250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싱가포르, 印尼의 공산주의운동도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ASEAN 국가 전체를 다룬다는 면에서도 이들 지역에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 필리핀 공산주의운동에는 후크반란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후크반란과 PKP를 좀더 부연·설명하고 막사사이의 평정화작업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관계를 월남과 비교분석해도 바람직하다.

答 辯

金國振: 자료가 미진하다는 점에는 본인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자료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근 東南亞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업적에서 많은 것을 참조했기 때문에 관련사실은 모두 검토되었다고 생각한다. ASEAN 諸國의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에 대처, 활용하는 전술을 월남과 비교하면 완전한 실패작이었다. 그 대표적 예가 泰國공산당으로 親中共 지도층의 실책으로 北部의 거점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여타의 지점은 앞으로의 연구에 반영하겠다.

(이후 질문은 참석자 전원에게 개방된다.)

劉家駒 : 김교수의 논문에는 ASEAN 형성원인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54년의 SEATO를 기점으로 ASPAC, ASA로 발전되어 온 東南亞의 국제기구는 1967년의 ASEAN 결성으로 꽃을 피운다. 그 원인은 물론 이 지역 국가들간의 관계개선이 첫손으로 꼽히지만 사실은 1965년 印尼공산당의 반란사건과 中共의 文革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印尼공산당 반란사건은 이 지역의 공산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中共이 文革으로 해외 혁명수출에 주력하자 ASEAN 각국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교수의 논문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할 필요를 느낀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상황에 있어 美蘇 양대진영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소홀하였다. 胡志明을 중심으로 거론했지만 胡와 대조하며 南의 고 딘 디엠의 실패는 美國式 민주주의를 越南에 이식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베트남과 중공 사이의 전쟁, 베트남難民에 대한 ASEAN 諸國의 태도도 언급되어야 한다.

洪廣鐸 : 김교수는 ASEAN 諸國이 비교적 富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했고 산업화정책으로 경제개발이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어 공산주의의 위협이 소실되었다고 지적했다. 내 생각으로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저지른 전쟁이나 학살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에 대해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산업화의 효과가 ASEAN 諸國內에 잘 파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ASEAN 諸國內에는 富의 불평등이 두드러진다. 산업화로 인한 역효과, 특히 泰國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타락상은 공산주의가 이 지역에서 언제든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소지를 보여준다.

山田展雄 : 베트남공산주의운동의 성공이 민족주의와의 결합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 설명을 바란다. 베트남공산화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베트남化작업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특징은 무엇인가? 베트남공산화과정에서 베트남공산당이 소련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얻었는가? 독립성취가 胡志明의 정치적 지도력강화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梁性詰 : 베트남의 赤化 이후에도 中共, 라오스에 대해 계속 國土回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개념은 그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 연장되는가? 胡志明의 기본입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는 공산주의자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자인가? 또 베트남체제를 胡志明이라는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규정하기 보다는, 그 지도자가 만든 정치·권력 구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答 辯

李範俊 : 이은호교수의 충고에 감사드린다. 劉교수는 디엠政權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 논문의 범위가 胡志明을 중심으로 한 越盟의 공산화추진작업에 맞추었기 때문에 디엠政權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분이 胡의 기본성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胡는 항상 공산주의이론은 뒷전에 두고 애국심, 민족주의를 내세워 조직을 확대해 갔고 또 성공을 거두었다. 胡는 1949년 中共建國까지는 심지어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부정했다. 美國大使에게 그는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베트남은 독립후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토지개혁 주창자를 처벌한 일도 있다. 그는 항상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이라는 이원성을 보이며 공산화를 추진했고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蘇聯으로부터 독립성을 얻게끔 만들었다. 山田교수가 질문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베트남化는 실제 없었다. 베트남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에 경도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전술에 이끌렸던 것이다. 胡는 1920~40년대 코민테른의 agent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고 이 시기까지는 蘇聯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였다. 1941년 이후 2차대전으로 코민테른이 東南亞에 관심을 갖지 못하자 자신의 독자적 노선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독자성 확보과정에서 胡志明은 蘇聯, 美國 등 강대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며 지도력강화에도 큰 성과를 거둔다. 본래 베트남공산당은 赤化對象의 설정에서도 베트남이라는 용어보다 인도차이나라는 말을 쓴다. 赤化는 처음 越盟에서 시작하여 越南,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확장되었다. 베트남은 이 일대의 완전통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은 胡志明시절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나 泰國은 그 범위 밖이라고 본다.

金國振: 홍교수의 지적은 내 논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탓이라고 생각한다. ASEAN 諸國은 1970년대 후반부터 印支공산국가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된다. 이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만행에 대해 특히 泰國인들이 큰 환멸감을 갖는다. 그럼에도 공산운동의 가능성은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SEAN 諸國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富의 분배나 사회모순은 그렇게 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ASEAN 諸國은 내부의 소수민족때문에 경제발전개념을 형평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양적개념으로 경제문제를 접근하지는 않는다. 국내의 소수민족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자극되어 공산주의와 결합하면 그것은 곧 域內 모든 국가의 안전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런 문제비약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나 흡족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갈등이 남아있는 한 공산운동의 가능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 泰國의 공산세력 대처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까지는 美國의 영향으로 군사적 대처방안을 이용했지만 1970년대부터는 CPM의 합동작전으로 사회경제적 대처정책을 쓰고있다. 그 결과 공산세력에 대한 평정화작업이 성공하여, ASEAN 諸國 내부의 경제발

전으로 인한 문제의 常存에도 불구하고 공산세력의 혁명수출지역으로는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았다.

閉 會 式

李相禹 : 3일간의 긴 회의의 끝이라 공식적인 폐회행사는 갖지 않겠다. 여러분의 연구논문과 토론내용은 10월말로 예정하고 있는 「東亞研究」第9集에 수록예정이다. 7월말까지 필자들이 논문의 수정을 끝내고 東亞研究所로 보내주면 차질이 없을 것이다. 통역을 맡은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동시통역을 동원하지 못해 회의가 상당히 지루한 감이 있었던 점에 사과드린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에 감사드리고 특히 全海宗, 李光麟, 李甲允교수 그리고 劉載天교수 이하 東亞研究所운영위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보다 훌륭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며 3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친다.